금주의 법구-〈선림보훈〉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그만둬야 한다.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은 바꿔선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일)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스님은 대탕평을 비롯해 선거제 개선, 전통문화 인식 개선 등의 종책 계획들을 내놨다.
사진=박재완 기자

설정 스님 "공의 모아 대탕평 시대를"

1월 11일 신년기자회견… 봉축 前 대사면 예고

불행한 종단 역사 정리
조계종 공동체 화합 위해
"부처님 당시 정신 새기자"

개인 의혹 · 선학원 관계에
'반드시 해결' 적극 의사
민영소년원 건립 추진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무술년 한 해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존경받는 한국불교'라는 종무기조 아래 대탕평 조치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체 화합을 도모한다. 대탕평 조치에는 멸빈자 사면과 해종언론 논란 등 각종 교계현안이 담겨 눈길을 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종무기조와 종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35대 집행부는 올해 △수행하는 한국불교 △승려복지 확대 △교구 · 종단 발전 △미래 대비하는 종무행정 △전법공동체 실현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한국불교 전통문화 홍보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책임있는 국가정책 도모 등을 중점 종책과제로 제시했다.

공의 통한 화합, 최우선 순위

기자회견서 설정 스님은 종단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사부대중 공의'에 무게를 두고, 대화합과 수행공동체 정신 회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우리 종단에는 시대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단의 제재로 대중과 멀어진 출가수행자들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계종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회향하길 희망한다"면서 "불행했던 과거의 아픈 종단 역사를 정리하고 조계종 공동체의 화합과 불교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화합, 대탕평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설정 스님은 이를 위해 종도들의 공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사부대중이 모여 조계종 공동체 대화합을 선언하는 법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설정 스님은 "대탕평 시행에는 사부대중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들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 수행심 회복과 종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정 스님이 발표한 대탕평 조치에는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과 해종언론 문제 등이 포함돼 주목된다. 질의응답서 스님은 "실수에 의해 영원히 내쳐지는 것은 부처님 뜻에 맞지 않다. 의현 스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복권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종도들의 이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아가는 소통의 통로가 대화인데 끊어진 부분이 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율장 근거한 선거제도 마련

지난해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종단 내 선거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는 설정 스님은 이날도 선거제도 폐해를 지적하고, 율장에 근거한 선거제 마련을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시비 분별을 논하게 되고, 무분별한 중상과 모략을 넘어 금권이 동원되는 참담한 상황이 바로 조계종 선거제도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기 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의 선거제도 개선 복안은 직선제 수용이 아닌 추대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스님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선거로 인한 문제는 발생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꽃인 직선제는 종교적인 입장서 볼 때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계종이 지배구조가 돼선 안 된다. 개선 노력에는 총무원장뿐만 아니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내 모든 선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불교 전통문화 홀대 정책 개선

아울러 설정 스님은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그릇된 인식과 민간문화재 홀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정서 빚어진 차질과 평창올림픽 강원도 문화사업에서 월정사가 배제되는 일 등에 대한 정부 인식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스님은 "편협한 역사관과 문화관을 지닌 일부에 의해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가치보다는 종교적 잣대 또는 종교적 형평성을 이유로 민족문화를 홀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과 시각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국가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질문 받은 설정 스님 '눈길'

한편 설정 스님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문에 직접 답했다. 먼저 선거과정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당장 세세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미진한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 서로 이해관계나 독선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영소년원 유치에 나서 불교계 최초의 교정시설을 세우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설정 스님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을 생명 · 자연을 중시하는 불교적 정신으로 교화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임기 내에 해내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불교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A2〉

"처처 갈등 · 분쟁 소멸시키고 지구촌 평화 위해 정진하자"

진제 스님, 조계종 신년하례서… 참선수행 강조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불기2562년 무술년을 맞아 종도들에게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본래면목(本來面目)' 화두를 제시하며 참나를 돌아보는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제 스님은 1월 8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서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1700년 동안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뤄왔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선도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은 2700년 전이나 작금(昨今)이 다르지 않으니 부처님 자비로 21세기 최후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사해오호(四海五湖)의 처처(處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이 소멸하여 모든 인류가 화합하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법어를 했다. 스님은 또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신년하례식은 진제 스님 헌향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헌다, 통알, 종정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각 교구본사, 신행 · 전법단체 대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통일대불에 9배를 올리고, 서로 예배를 했다.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가 전계대화상으로 추천한 성우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설정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대덕이 법체정정해 종단을 외호해 주시고, 사부대중은 있는 자리서 부단히 정진해 무상정각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런 공덕으로 나라가 환희청정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며 부처님의 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1월 8일 대구 동화사서 열린 조계종 신년하례법회서 참여 대중이 새해 통알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사고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지역포교 사업에 동참하실 역량있는 지사 · 지국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 충청도 · 경남 북부 · 제주도
■사업 내용 | 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제출 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지역 사암연합회 등의 단체장 또는 종단 임원)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방법 | e-mail, 우편
■모집 기한 | 1월 31일까지

(우)03131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전 화 | 대표 02)2004-8200 직통 02)2004-8204
e-mail | cgseo@hyunbul.com



장엄불사 전문기업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은 연등 자동승강장치, 장엄등설치, 인등, 위패, 원불전등 사찰장엄불사 전문기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시공,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찰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공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천불전



연등설치공사(고정식)



인등




위패



성취등


불사용품

www.boryeon.com
BORYEON 보련기획 | 010-5381-9355 / 031)526-2201~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전시판매장 : 정진(조계사 맞은 편) 02)722-5900 / 010-4117-3893